

삼성-SK, 메디슨 인수 “한판경쟁”

10월20일 입찰제안서 제출 ... 헬스케어 부문 인수종 사업 육성 위해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메디슨의 인수 입찰제안서 제출함으로써 인수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월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사모펀드인 칸서스인베스트먼트가 가진 메디슨 지분 40.94%를 인수키로 하고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10월20일 JP모건에 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메디슨 인수전을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그룹 외에도 KT&G, 일본 Olympus, 네덜란드 Phillips 등 6곳 이상이 LOI를 제출한 바 있다.

칸서스인베스트먼트는 11월 중으로 입찰제안서를 낸 곳 가운데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헬스케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메디슨을 인수키로 결정했다.

2010년 5월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삼성전자는 4월 엑스레이 장비 생산 기업 레이의 지분 68.1%를 인수하고 6월에는 중소병원용 혈액검사기를 출시하는 등 헬스케어 사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그룹 역시 의료기기, 헬스케어 사업을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 본격화하기 위해 메디슨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디슨은 1985년 설립된 초음파 진단기기 전문기업으로 세계시장의 7%를 차지해 GE, Phillips, Siemens, Toshiba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8>